



벤츠, 독보적 질주

올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6개월 연속으로 판매 1위에 오르며 수입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은 14만1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152대)에 비해 18.6% 늘어났다. 역대 최대 상반기 판매량(11만9832대·2015년)을 뛰어넘었고 이대로라면 25만대 판매량을 넘어 국내 수입차 3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벤츠다. 벤츠는 올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3만

상반기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 벤츠, 6개월 연속 판매 1위 3만7723대 판매 전년비 9%↑ 광주·전남 전년비 752대 증가

7723대)보다 8.9% 증가한 4만1069대를 팔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상반기 내수 판매량(4만920대)보다 많고 한국GM(4만2497대)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벤츠는 올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월간 판매순위 1위 자리를 6개월째 지키고 있다. BMW

는 올 상반기 3만4568대가 팔려 전년도 같은 기간(2만8998대)보다 판매 성장률이 19.2%나 증가, 눈길을 끈다. 도요타가 상반기 8450대가 팔리며 판매량 3위에 올랐다.

지역별 판매량도 대부분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팔린 수입차가 3만409대(2017년 동기 2만4344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4947대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상반기 302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2554대)보다 늘어났고 전남도 상반기에 2521대의 수입차가 팔리면서 전년도 동기(2244대)보다 많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 번호판 앞번호 세자릿수로

국토부 내년 9월부터... 기존 차량 교체도 허용

52가 3108 → 152가 3108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부분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자릿수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새 번호체계는 현행 '52가 3108' 형식에서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152가 3108' 형식으로, 대국

민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확정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2억998만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새 교통수단 출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글자체 변경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대기아차 SUV, 미국서 '씽씽'



현대 '싼타페'



기아 '쏘렌토'

제네시스 포함 지난달 6만4052대 판매... 전년비 18% ↑

현대기아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입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브랜드 포함)는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6만4052대를 팔아 작년 6월(5만4507대)보다 판매 실적을 18%나 끌어올렸다.

현대차 약진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이끌었다.

현대차 SUV 브랜드의 6월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하는 등 최초로 월간

판매 3만대를 넘어섰다. 투싼은 지난달 1만6173대가 팔려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 62%로 SUV의 약진을 이끌었다.

신형 SUV 코나도 4240대가 팔리며 효과 노릇을 했다. 엘란트라와 쏘나타, 아이오닉도 전년 대비 각각 34%, 5%, 7% 증가해 판매실적 향상에 한몫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도 지난달 5만6571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5만6143대)보다 판매 실적을 0.8% 끌어올렸다.

기아차에서도 쏘렌토가 1만2000대 넘게 팔려 전년 같은 달 대비 24%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고 니로도 전년도 같은 기간(2188대)에 비해 늘어난 2720대가 팔렸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J.D.Power)의 '2018 신차품질조사'에서 31개 자동차 브랜드 중 1-3위를 휩쓸었다.

제네시스의 경우 전체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순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기아차는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는 2위, 일반 브랜드 순위에서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전체 브랜드 순위 3위, 일반 브랜드 2위를 차지하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은 "(자동차 평가기관) JD파워에서 4년 연속 월드클래스 품질인정을 받은 기세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아메리카 베스트 밸류 서머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자동차 종합정보 '자동차365' 조회수 폭발

스마트폰 앱 4개월만에 28만건 조회·다운로드 6500건

신차구매,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 서비스가 지난 3월 운영에 들어간 이래 수십만건의 조회 실적을 올리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App)이 지난 3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조회실적 28만건(평일 평균 2300건), 앱 다운로드 6500건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공되는 50여개 서비스 중 ▲신차등록비용 ▲검사절차 안내 ▲중고차시세 등이 조회 수 1~3위에 올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비용 서비스는 신차·중고차 관계없이 차량 구매금액과 배기량, 등록지역만 입력하면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기능이다. 또 중고차 구입 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됐는지 알려주는 '푸시' (능동형 알리미) 기능도 눈길을 끄는 서비스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